



11

예산절감!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양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 : 회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강원도가 한때 원양도(원주-양양), 강양도(강릉-양양)로 불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양양은 과거 영동의 중심지였다. 강릉과 속초 두 도시의 유명세에 가려 있을 뿐이지 고유한 지리적 조건과 역사, 문화적 유적들만 봐도 흥미진진한 애깃거리가 많은 곳이 양양이다. 양양이 강릉이나 속초와 달리 시로 발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은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것 같다. 올해 동해고속도로 양양 구간이 완공되고 2014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까지 153km, 1시간 반 거리로 단축된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양양 국제공항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군 자체적으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꾸준히 도시민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귀농 귀촌을 이끌어내고 있다. 도시민 유치 장려에 대한 성과로 지난해에는 19가구 52명이 귀농하는 성과가 있었다. 양양군은 귀농인들이 일정한 수가 되면 귀농인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기에 예술 문화인들을 대상으로 한 창작공간을 제공해 문화 예술마을로 만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지속적인 영농편의와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2010년 추진된 회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최소 30억 이상의 예산 절감을 이끌어낸 양양군의 지표수보강개발 스토리를 들어보자.



저수지 신설보다 더 좋은 방법

이번 양양군의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회룡지구 52.4ha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임에도 안정적인 수원공 시설이 없어 한발 시에는 물론이고 평년에도 내한능력이 부족하여 사업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던 곳이다. 양양군과 농어촌공사는 회룡지구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댐이나 저수지 등 새로운 수원공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었다.

우선 신규 저수지 축조를 골간으로 하는 방안의 사업을 검토한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다. 신규 저수지 축조 예상 지역인 지재골은 유역면적이 18ha에 불과하여 보강 대상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여 타당성이 없었고, 인근의 송암골에는 공동묘지와 펜션이 산재해 있어 수해면적 대비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나타났다. 게다가 신규 저수지 축조 예정지로 계획했던 곳이 설악산과 연결해 있는 곳이어서 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면밀한 검토로 인해 신규 저수지 축조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인근 저수지를 활용해 보자는 것! 신규 저수지를 축조하는 방안을 폐기하고 인근 둔전리 설악 저수지의 풍부한 유량을 취수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완전히 변경한 것이다.

강현면 둔전리 소재의 설악 저수지는 산 너머의 강현면 장산리 등 7개리에 걸쳐 228ha의 면적에 급수하고 있는 수원공이다. 설악 저수지가 위치한 둔전리 일대는 상류에 진전사 등 관광객들의 탐방이 이어지는 마을 운영 휴양지가 조성되어 있어 상시 일정 하천수를 유지해야 하는 곳이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설악 저수지 물리 구역 확장에 따른 수원부족을 우려했지만 설악 저수지의 물 수지 분석 결과, 유효 저수량이 140만 m^3 나 되어 사업대상 지역인 회룡지구 보강구역까지 급수하더라도 기존 수리권인 설악지구에 물 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개거 전



개거 후



개거 전



개거 후



수로교 전



수로교 후



연락교량 전



연락교량 후

따라서 설악 저수지 아래 취입보에서 시작된 도수로에서 분기하는 용수로 1조를 신설하여 산을 관통하는 도수터널을 지나 사업대상 회룡지구 52.4ha에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최소 30억 최대 70억 절감효과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없을 경우 한해를 겪는 개별필지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기계관정을 설치해주어야 한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한번에 용수공급이 해결되면 이같은 개별 기계 관정보다 예산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양양군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예산절감을 이끌어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규저수지를 조성하는 대신 인근 저수지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대안을 강구한 양양군의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을 추정해 보니 최소 30억에서 최대 70억 원에 이른다. 보

| 사업내용 및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획	'10까지	'11계획	'12이후
사업비	4,378	1,700	700	1,978
사	회룡간선: 1조 1,784m · 용수잠관: 1조 439m · 용수터널: 1조 359m · 용수개거: L=783m · 취입보: B=8m, L=12m	· 용수잠관: 1조 439m · 용수개거: L=343m · 용수터널: 1조 359m		· 용수개거: L=440m · 취입보: B=8m, L=12m
업	둔전도수로: 1조 442m · 수로교: 2조 70m · 용수개거: L=372m · 진입교량: 1조 21m	· 용수개거: L=269m	· 수로교: 2조 70m · 용수개거: L=103m · 진입교량: 1조 21m	
량				



농어촌공사 영북지사 황계남 과장

통 신규 저수지 건설비용은 대략 70억에서 100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 양양군의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도수로 및 도수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축소되어 총사업비는 약 44억 원에 불과하다. 예산 효율화를 이끌어낸 최적의 모범사례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 사업은 저수지 신설로 인한 환경파괴도 막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공사시행 시 일용직근로자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일자리창출도 이루어 낸 사례이다.

물싸움? 주민들의 오해

현재 회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양양군과 속초시 인접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 보니 사업 초기 양양군과 속초시의 오래된 수계 갈등으로 인한 작은 오해가 있었다. 설악저수지에서 산을 뚫고 건너편으로 용수공급 관로를 만들다 보니 “속초시에 물을 주려고 이렇게 국비를 쓰는 것이냐”라는 주민들의 항의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수로의 방향이 속초시를 향하고 있다 보니 오해는 더 커졌다. 어느새 “양양군의 농업용수를 가져다가 속초시의 상수도를 공급해주는 공사”라는 것이 정론화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만 갔다.

예전부터 남대천이 있는 양양군은 상대적으로 물이 풍부하고 속초시는 늘 물 부족을 겪고 있었다. ‘물 좀 달라’는 속초시의 요구를 주민들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 이같은 오해가 나올 만도 했다. 하지만 이번 공사는 농업용수확보 공사로 농어촌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반면, 생활용수에 관한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관련 상황과 공사내역을 전달하니 주민들의 오해는 칼로 물 베기처럼 금세 풀릴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사현장 주변마을 둔전리, 간곡리, 회룡리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빗진 마음이다. 총 2.2Km의 도수로가 이어지는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포크레인 등 각종 중장비가 드나드는 가운데 모든 공사 소음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공사로 인해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이런 공사는 그야말로 민폐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소음 민원에 대비해 야간 공사나 이른 아침 공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려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

상시 용수공급으로 추가효과 기대

회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2009년 2월에 착공되어 현재 주요 공정이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터널공사에 들어가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룡용수간선 1조를 신설하여 회룡리 및 상북·중북리에 걸친 52.4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물론 노후화 및 용수누수가 심했던 둔전도수로를 보강하는 것도 사업에 포함되었다. 지역 간 용수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영농편의는 물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할 이번 사업으로 인해 토지 생산성 증대와 주민들의 생활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상시 용수공급이 가능해지면 지역 자연휴양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무엇보다 신설 수원공 사업비 대비 최소 사업비로 동일 효과를 얻어냈다는 부분은 양양군의 탁월한 사업능력을 보여주는 선례가 되어줄 것이다. 양양군은 앞으로도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핵심사업을 적극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과거의 영광에 버금가는 양양의 꾸준한 성장을 기원한다.



양양 귀농 체험